

# AI(Claude3)가 작성한 「매킨지의 기술 트렌드 전망 2024: 15가지 열쇠」보고서

- 기술 트렌드 전망 2024: 미래를 향한 15가지 열쇠 -

(2024.08.05.)

글쓴이 Claude 3(by Anthropic), 프롬프팅·편집 신동형(donghyung.shin@gmail.com)

#저는프롬프팅만했습니다

#AI가작성했습니다.

## Key Questions & Answers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 폐쇄형과 개방형 솔루션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저작권 이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과제와 타임라인은?

- 양자비트 오류 보정과 장기 유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10년간 꾸준한 기술적 진전이 이뤄지겠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멍니다.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대중화될까?

- 안전성과 규제, 인프라, 소비자 수용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30년대 중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진 않을까?

- 장기적으로 일자리 대체보다는 보완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저숙련 업무는 줄겠지만 로봇을 다루고 관리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기후기술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 탄소국경세 도입,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 마련에도 공조해야 합니다.

# 1. 인공지능 혁명

## 1.1. 생성형 AI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술입니다. 2022 년 말 ChatGPT 의 등장으로 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죠. 구글 검색량만 해도 전년 대비 700%나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 서비스, 마케팅, 신약 개발 등 다방면에서 생성형 AI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ING 은 고객 맞춤형 챗봇을 도입해 문의 응대 속도를 높였고, 이타우 은행은 GPT-4 기반 가상 어시스턴트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가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편향성, 윤리성, 저작권 등의 이슈도 남아있죠. 기업들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표 1 폐쇄형 vs. 개방형

구분	장점	단점
폐쇄형	데이터 보안 강화, 맞춤형 개발	비용 부담, 기술 역량 필요
개방형	비용 절감, 접근성 용이	보안 및 품질 리스크

## 1.2. 응용 AI

응용 AI(Applied AI)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킨지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 가량이 앞으로 AI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AI 허브를 구축해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추 효율을 높였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AI 로 발전소 운영을 최적화해 연간 2,300 만 달러를 절감했죠. 응용 AI 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향상, 새로운 통찰력 발굴 등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품질 관리, 윤리적 AI 개발, 조직문화 개선 등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변화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AI 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2 AI 활용 분야와 사례

AI 활용 분야	주요 기업 사례
에너지	사우디 아람코(유전 데이터 분석), 비스트라 에너지(발전소 운영 최적화)
금융	ING(챗봇 고도화), 누뱅크(신용 관련 맞춤 제안)
제약/바이오	인실리코 메디슨(신약개발 기간 단축)

### 1.3. 기계학습의 산업화

기계학습의 산업화(Industrialized Machine Learning) 또는 MLOps 는 대규모로 ML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ML 모델 구축 시간을 최대 90%까지 단축하고, 운영 비용도 4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맥킨지 분석).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테크 공룡들은 ML 플랫폼을 고도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MLOps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죠. 기업들은 ML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 자동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AI 시대의 개발자는 단순 코딩을 넘어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통합, 이상 탐지 등 더욱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架子, 전문 인재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MLOps 가 성숙해짐에 따라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 성과지표 등도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디지털 미래 구축

### 2.1.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AI 코드 생성, 로우코드 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등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드 자동 완성이나 결함 탐지를 대폭 개선한 Tabnine, 기업용 앱 개발을 간소화한 MS 파워앱스가 대표적입니다. 씨티은행은 Harness CD 플랫폼으로 2 만여 명의 개발자가 협업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도움으로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진입 장벽은 낮아지겠지만, 보안이나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과 AI 가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 3 AI활용 차세대 소프트웨어**

구분	장점	단점
AI 코드 생성	개발 속도 향상	보안/품질 우려
로우코드 툴	민첩성 확보	거버넌스 이슈

## 2.2. 디지털 신뢰와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엣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신뢰 기술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한 혁신을 가능케 하죠.

제로 트러스트, 자기주권 신원증명, 동형암호, 설명가능한 AI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일즈포스는 Einstein Trust Layer 를 통해 LLM 사용시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씨티은행은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다만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 상이한 규제 환경, 프라이버시와 공정성 간 딜레마 등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정책적 논의,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표 4 디지털 신뢰 기술 유형과 사례**

유형	세부 기술
디지털 신원	분산신원증명(DID), FIDO
프라이버시 보호	동형암호, 차분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보안	영지식 증명, 다자간 계산

### 3. 컴퓨팅과 연결성의 경계 확장

#### 3.1. 첨단 연결성

5G 와 위성통신의 발달로 사람, 사물, 공간을 잇는 초연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나고 있죠.

KT 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K-시티에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포르쉐는 메타의 Quest 3 MR 헤드셋으로 가상 차량 체험을 제공하고 있죠. 6G 상용화도 2030 년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심화로 통신사들의 투자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글로벌 공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 5 연결성 기술

구분	특징	주요 서비스
5G	고속/대용량	자율주행, VR/AR
6G	초저지연/고신뢰성	8K 미디어, 디지털 트윈
위성통신	광역/원격지 커버리지	재해통신, 우주관광

#### 3.2. 몰입형 현실 기술

VR/AR/MR 로 대변되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교육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eta 의 Quest 3 나 Apple 의 Vision Pro 처럼 헤드셋이 고도화되면서 시장 성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월트디즈니는 Epic Games 와 협력해 포트나이트 내에 가상 디즈니월드를 만들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Nvidia 와 30 여개 공장의 디지털트윈을 구현했습니다. 그래픽 성능 개선, 무게 경량화, 배터리 용량 증대가 수반된다면 이르면 2025 년께 대중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표 6 몰입형 디지털 현실 기술

유형	특징	주요 분야
VR	가상공간 몰입	게임, 교육, 테마파크
AR	현실에 정보 추가	네비게이션, 제품 체험
MR	현실-가상 연동	기기 원격제어, 협업

### 3.3.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는 데이터 저장과 처리를 중앙 집중화하는 반면, 엣지는 현장 중심으로 정보를 분산 처리합니다. 양자의 장점을 적절히 배분해 속도와 보안,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구글과 제휴해 키오스크, 주방기기 등에 엣지 컴퓨팅을 적용하고,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은 Kioxia의 엣지용 SSD를 도입해 AI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만 다수 엣지 기기 관리와 보안, 레거시 시스템 통합, 수익성 입증 등은 향후 해결과제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프로세스 혁신을 병행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표 7 클라우드 vs. 엣지

구분	장점	단점
클라우드	확장성, 비용 효율	지연, 보안 이슈
엣지	빠른 처리, 개인정보 보호	복잡성, 통합 어려움

### 3.4. 양자 기술

양자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초고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기술입니다.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나 신소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죠. 다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양자 커뮤니케이션은 도청이 불가능한 초보안 통신을 지향합니다. 중국과 유럽에서는 위성 기반 양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양자내성암호 표준안을 발표하는 등 포스트 양자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HSBC는 양자컴퓨팅 업체 Quantinuum과 제휴해 사기탐지 고도화에 나섰다, 애플은 메시지앱에 PQC 암호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막대한 초기 투자, 전문 인재 부족 등 견인차 역할을 할 민간 주도 프로젝트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표 8 양자 기술 구분**

유형	주요 활용처
양자컴퓨팅	신약/신소재 개발, 금융 모델링
양자통신	군사 보안, 금융거래
양자센서	자율주행, 정밀의료

## 4. 최첨단 엔지니어링

### 4.1. 로봇틱스의 미래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로봇의 지능과 기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를 넘어 의료, 농업, 서비스 등 전방위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BMW는 Figure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립라인에 투입할 계획이고, Chipotle는 농업용 자율주행 로봇 GreenField에 투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당 배달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죠.

향후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일상화될 전망입니다. 단순 작업은 줄겠지만 로봇을 운용/정비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안전성과 윤리성, 책임소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표 9 로봇틱스 활용 예시**

유형	특징	주요 활용처
산업용	고하중/정밀작업	제조, 물류
서비스용	감성/인지지능 탑재	외식, 호텔, 돌봄
휴머노이드	사람과 유사한 형태	건설, 우주탐사

## 4.2. 모빌리티의 미래

친환경/자율주행/공유 모빌리티 기술은 이동성 혁명의 3 대 축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자율주행 택시와 트럭, 드론 배송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비 60% 증가한 1,2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을 출시했죠. Joby Aviation은 2026년께 두바이에서 에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원가 절감,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대중화의 관건입니다. 안전성/보안성 확보, 제도 정비,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도 자율주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 10 모빌리티 분야

분야	국내외 동향
전기차	테슬라 점유율 하락, 현대차그룹 약진
자율주행	웨이모/크루즈 로보택시 상용화
에어모빌리티	드론 배송 급증, eVTOL 개발 활발

## 4.3.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미래

유전자 가위 기술로 불리는 CRISPR는 의학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 기술로 꼽힙니다. 유전병 치료부터 작물 개량까지 그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AI 기술과의 융합으로 신약 개발 기간도 크게 단축되고 있죠.

Vertex사는 CRISPR 기반 유전자 치료제 Casgevy를 출시해 겸상적혈구병과 베타지중해빈혈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가증폭 mRNA 백신을 세계 최초로 허가했는데, 코로나 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밀의료의 발전으로 첨단 바이오 기술이 점차 보편화될 것입니다. 다만 유전정보 오남용, 낙인효과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은 인류에게 축복인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에, 기술 발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표 11 바이오엔지니어링**

분야	대표 기술
유전체학	CRISPR, CAR-T
합성생물학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육
재생의학	인공장기, 만능줄기세포

#### 4.4. 우주 기술의 미래

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위성 인터넷, 초정밀 지도, 우주관광 등 전에 없던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 개발과 우주 제조업 등 먼 미래의 꿈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죠.

스타링크는 이미 60 개국 230 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2027 년까지 4 만 2 천기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와 애플의 긴급 위성 연결 서비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3 년 글로벌 우주 발사 횟수는 전년비 20% 증가한 223 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인도 등에서도 발사가 활발하죠. 한국도 누리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 쓰레기 증가, 주파수 간섭, 천문관측 방해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주 개발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차원의 규범 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할지, 기술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표 12 우주 기술 예시**

분야	동향
위성통신	스타링크 독주, 아마존/애플 추격
발사체	재사용 로켓 확대, 국가간 경쟁 심화
우주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순항, 민간 달착륙선 개발

## 5. 지속가능한 세상

### 5.1.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비 45% 감축하고,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IPCC). 에너지 전환, 즉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죠.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화석연료와 경쟁력을 갖췄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장거리 송전, ESS 등 보완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효율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전력망 부족 등 기술적 난제가 산적해 있고, 막대한 초기투자도 걸림돌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정의 문제, 일자리 전환 등 사회경제적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표 13 지속 가능 에너지 예시

유형	기술 성숙도
태양광	상용화
풍력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실증
차세대 원전	개발

### 5.2. 전기화/재생에너지를 넘어선 기후기술

순환경제와 자원효율, 탄소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and Storage; CCUS) 기술 등도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바이오 소재, 식물기반 대체육 등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최대 2 억톤의 CO2 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WRI). 반면 CCUS 는 2030 년까지 8~29 억톤의 추가 처리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죠.

글로벌 기후 위기를 타개하려면 GDP 1%에 해당하는 1.2 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IEA). 정부 정책과 보조금을 통해 기술 혁신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탄소국경세 도입 등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개도국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표 14 친환경 기후 기술**

유형	잠재력(Gt CO2e/년)
식량낭비 감축	0.2
CCUS	0.8~2.9
산림/토지 복원	1.5~4.5

## 6. 맺음말

지금까지 '테크 트렌드 전망 2024'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복잡한 기술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메타버스와 양자컴퓨터... 10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초래할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 감소, 프라이버시 침해,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제도와 규범, 윤리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나침반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술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물줄기를 제어하고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트렌드 #TechnologyTrends, #인공지능 #ArtificialIntelligence, #디지털전환 #DigitalTransformation,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메타버스 #Metaverse, #로봇공학 #Robotics, #모빌리티 #Mobility, #기후변화 #ClimateChange, #탄소중립 #CarbonNeutrality, #에너지전환 #EnergyTransition

#### 참고자료

McKinsey Technology Trends Outlook 2024 (Mckinsey, 2024)([LINK](#))

## 신동형의 AI로 작성한 보고서 시리즈

57. 20240802\_AI(Claude3.5)가 작성한 「SAM 2:이미지와 비디오의 경계를 넘는 혁신적 AI 분할 모델」보고서([LINK](#))
56. 20240801\_AI(Claude3.5)가 작성한 「넥스트 컴퓨팅 시대를 향한 메타와 엔비디아의 혁신 전략」보고서([LINK](#))
55. 20240731\_오픈AI 벌써 서치GPT 적용했나?([LINK](#))
54. 20240730\_AI(Claude3)가 작성한 「오픈AI의 서치GPT, 차세대 검색 엔진의 진화」보고서([LINK](#))
53. 20240729\_AI(Claude3.5)가 작성한 「오픈AI의 서치GPT: AI 기반 차세대 검색의 혁명」보고서([LINK](#))
52. 20240726\_AI(Claude3)가 작성한 「Arm Kleidi: ARM CPU 기반 AI와 CV를 통한 온디바이스 AI 성능가속화」보고서([LINK](#))
51. 20240725\_AI(Claude3)가 작성한 「Meta,퀘스트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보고서([LINK](#))
50. 20240724\_AI(Claude3)가 작성한 「메타 Llama 3.1 공개로 보는 오픈소스 AI 미래」보고서([LINK](#))
49. 20240723\_AI(Claude3)가 작성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ICML 2024 발표:AGI 실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보고서([LINK](#))
48. 20240722\_AI(Claude3)가 작성한 「AWE USA 2024 리포트: XR의 현재와 미래」보고서([LINK](#))
47. 20240717\_AI(Claude3)가 작성한 「갤럭시 폴드6·플립6 머리, 퀄컴스냅드래곤8 Gen3」보고서([LINK](#))
46. 20240716\_AI(Claude3)가 작성한 「오픈AI 스트로베리 프로젝트:AI추론 능력의 혁신과 미래」보고서([LINK](#))
45. 20240715\_AI(Claude3)가 작성한 「Vision AI와 Edge AI 기술 동향과 Arm의 전략」보고서([LINK](#))
44. 20240714\_AI(Claude3)가 작성한 「Vision AI와 Edge AI 기술 동향과 Arm의 전략」보고서([LINK](#))
43. 20240712\_AI(Gemini)가 작성한 「AI for Good by ITU: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혁신사

례」보고서([LINK](#))

42. 20240711\_AI(Claude3)가 작성한 「AI for Good by ITU: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혁신 사례」보고서([LINK](#))

41. 20240711\_AI(Claude3.5)가 작성한 「갤럭시 언팩 2024」보고서([LINK](#))

40. 20240710\_AI(Claude3)가 작성한 「Arm 기술혁신; 미래를 향한 13가지돌파구」보고서([LINK](#))

39. 20240709\_AI(Claude3)가 작성한 「Meta FAIR의 AI 연구 혁신:창의성, 효율성, 책임감의 조화로 운 실현을 향하여」보고서([LINK](#))

38. 20240708\_AI(Claude3)가 작성한 「 OpenAI 해킹 사태로 본 AI 기업의 보안 위협과 대응 전략 」보고서([LINK](#))

37. 20240705\_AI(Claude3)가 작성한 「Runway社の Gen-3 Alpha 출시」보고서([LINK](#))

36. 20240704\_AI(Claude3)가 작성한 「Formation Bio: AI 기반 신약 개발」보고서([LINK](#))

35. 20240703\_AI(Claude3)가 작성한 「AI 평가 체계 대전환을 향한 엔트로픽의 도전」보고서([LINK](#))

34. 20240702\_AI(Claude3)가 작성한 「5G-A 시대의 개막, 화웨이의 비전과 전략」보고서([LINK](#))

33. 20240701\_AI(Claude3)가 작성한 「소셜 웹의 新패러다임, 페디버스가 열어갈 미래」보고서 ([LINK](#))

32. 20240628\_AI(Claude3)가 작성한 「CriticGPT, 차세대 RLHF 위한 Human-AI 시너지」보고서 ([LINK](#))

31. 20240627\_AI(Claude3)가 작성한 「Computex 2024에서 Top4 반도체 기업의 전략으로 살펴본 AI 시대의 반도체 산업 전망」보고서([LINK](#))

30. 20240626\_AI(Claude3)가 작성한 「SLAM 기술: 공간 지능의 핵심 동력」보고서([LINK](#))

29. 20240625\_AI(Claude3)가 작성한 「EU의 AI 규제 강화와 빅테크의 대응:Meta와 Apple 중심으로」보고서([LINK](#))

28. 20240624\_AI(Claude3)가 작성한 「Intel의 AI 시대 도전과 전략」보고서([LINK](#))

27. 20240621\_AI(Claude3)가 작성한 「Claude 3.5 Sonnet: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보고서([LINK](#))

26. 20240620\_AI(Claude3)가 작성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약, 3D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 의 부상 」보고서([LINK](#))

25. 20240619\_AI(Claude3)가 작성한 「Arm, AI 컴퓨팅의 미래를 향한 비상(飛上)」보고서([LINK](#))
24. 20240618\_AI(Claude3)가 작성한 「AMD, AI 시대 컴퓨팅 혁신으로 지능화 가속화」보고서([LINK](#))
23. 20240617\_AI(Claude3)가 작성한 「Apple의 차별화된 AI 전략」보고서([LINK](#))
22. 20240614\_2024 컴퓨텍스 기초연설로 본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과 전략, 「엔비디아, AI 시대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LINK](#))
21. 20240613\_AI(Claude3)가 작성한 「AI PC 시대의 도래: 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변화」보고서([LINK](#))
20. 20240612\_AI(Claude3)가 작성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이렇게 생각하고 배웁니다」보고서([LINK](#))
19. 20240611\_AI(Claude3)가 작성한 「WWDC2024 애플 개인맞춤형 지능 기술로 새로운 미래 제시」 보고서([LINK](#))
18. 20240517\_AI(Claude3)가 작성한 빅테크 기업 AI 전략 비교 분석 보고서[MS & OpenAI vs. Google vs. Meta의 AI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LINK](#))
17. 20240515\_AI(Claude3)가 작성한 Google I/O 2024 보고서, AI 혁신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LINK](#))
16. 20240514\_AI(Claude3)가 작성한, OpenAI의 GPT-4o 공개, 멀티 모달 AI 혁명의 신호탄([LINK](#))
15. 20240425\_AI(Claude3)가 작성한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AI Vision으로 세상을 바꿉니다([LINK](#))
14. 20240425\_AI(Claude3)가 작성한 보고서,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도래: Phi-3와 Llama-3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LINK](#))
13. 20240424\_AI(Claude3)가 작성한 보고서: 경량 AI 시대의 개막, Microsoft의 Phi-3가 가져올 산업 혁신과 AI 대중화([LINK](#))
12. 20240423\_AI(Claude3)가 작성한 메타플랫폼의 XR 생태계 新 전략([LINK](#))
11. 20240421\_AI(Claude3)가 작성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LLAMA3과 On-Device AI 시대 도래([LINK](#))
10. 20240419\_AI(Claude3)이 작성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라마3(LLAMA3) 출시와 전망 보고서

[\(LINK\)](#)

9. 20240419\_AI(Claude3)이 정리 작성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프롬프팅 프레임워크 설명([LINK](#))
8. 20240412\_AI(Claude3)가 작성한 인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과 비전([LINK](#))
7. 20240408\_AI(Claude3)가 작성한 2024년 중국 AI LLM 산업 발전 보고서 정리([LINK](#))
6. 20240408\_AI(Claude3)가 작성한 Embodied AI: 현황, 전망, 그리고 미래([LINK](#))
5. 20240403\_AI(Claude3)가 작성한 반도체 유리기판 공급망 분석 보고서 (전자신문 기획기사 참조)([LINK](#))
4. 20240401\_AI(Claude3)가 작성한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략 비교 분석 보고서([LINK](#))
3. 20240326\_AI(Claude)가 쓴 애플의 현재 AI 전략에 대한 회고: 글로벌과 개인정보보호 관점(긍정적)([LINK](#))
2. 20240322\_AI(Claude3)가 작성한 엔비디아 파트너로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HBM 사업을 중심으로([LINK](#))
1. 20240320\_AI(Claude3)가 작성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GTC 2024' 기초연설 리뷰([LINK](#))